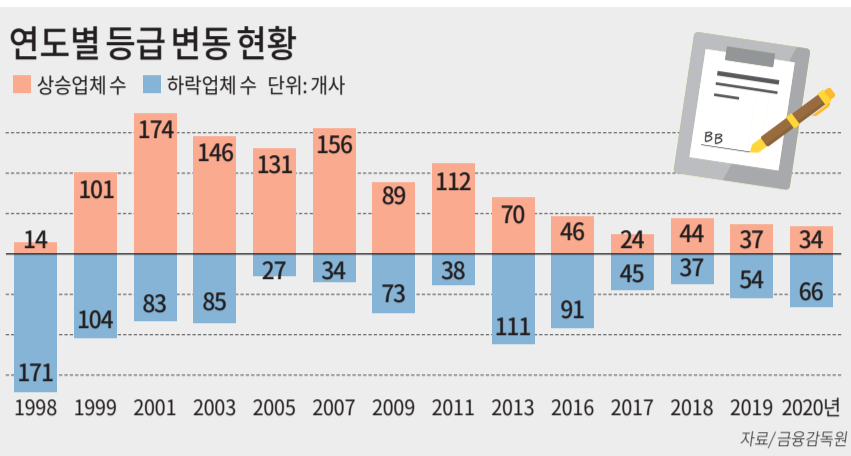


신용등급 하락한 기업 66곳 코로나 여파에 신용등급 하향세

기업 등급 부정적 전망 크게 늘어
투기등급 비중, 연초비 5.2%p ↑
등급상승 34개사... 3개사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의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급격하게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부도율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등급전망이 부정적인 곳이 크게 늘었다.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등급 하락 리스크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무보증회사 등급보유 업체 수는 총 1240개사(중복포함)로 연초 대비 109개사(9.6%)가 늘었다.

투자등급인 AAA~BBB등급 업체 수는 1045개사로 연초 대비 33개사(3.3%) 증가했다. 투기등급인 BB~C 등급 업체 수는 195개사로 연초 대비 76개사(63.8%)나 늘었다.

투기등급 비중은 15.7%로 연초 대비 5.2%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부도업체는 두 곳으로 연간 부도율은 0.27%다. 전년 0.91% 대비 낮아졌다. 모두 투기등급이었으며, 지

난 2015년 이후 투자등급에서 부도업체는 없었다.

등급상승은 34개사로 전년 대비 3개사 감소했다. 반면 등급하락은 66개사로 전년 대비 12개사 증가했다.

등급변동성향은 -2.8%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감소해 전년에 이어 하향조정 기조가 유지됐다.

신용등급 방향성에 대한 1~2년 전망을 보여주는 등급전망(outlook) 부여업체는 195개사(안정적 제외)다. '긍정적'은 40개사로 20.5%에 불과했고, '부정적'이 155개사로 79.5%를 차지했다.

부정적 비율이 2019년 말 65%에서

2020년 말 79.5%로 14.5%포인트 상승해 등급하락 기조가 다소 강화됐다.

등급감시(rating watch) 등록업체는 10개사다. 이 중 상향검토는 3개사, 하향검토는 7개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들어 신용등급이 하락한 회사가 증가하고 등급하락 방향성이 강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이 지속되는 분위기"라며 "향후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될 경우 코로나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등급 하락 리스크가 가시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대출 불이익 최소화

금융위,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
신용평가시 회복가능성 반영

지난해 코로나19 피해로 영업실적이 악화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올해 신용평가시 비재무평가 등을 통한 회복가능성이 반영된다. 일시적으로 영업이 악화된 중소기업이 신용등급 하락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용등급 하락 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중소기업의 60.3%는 지난해 매출감소로 금리한도 등 대출조건이 나빠질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금융기관이 신용평가과정에서 회복가능성 등을 충분히 반영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은행, 보험사(법인대상), 정책금융기관 등 자체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평가시 비재무적 평가 또는 최종등급 산출과정에서 회복가능성을 반영한다.

반영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 ▲현재 정상영업중으로, 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고 ▲매출회복 등 재무

상태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재무상태 개선가능성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했지만 최근 회복세인 경우 ▲거리두기 완화시 매출 회복가능성이 큰 경우 ▲동종 업종 평균에 비해 매출액 감소 등이 작은 경우 ▲현금보유 비율 등이 개선된 경우로 판단한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부실이 없는 정상 차주라면 대출한도 축소, 금리인상 등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이같은 방안이 금융기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검사 및 제재도 면제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한 대출은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기관이나 임직원에게 대한 제재도 실시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기관은 이달 말까지 신용평가에 필요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내달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며 "다만 금융기관별로 신용평가 모형이나, 차주에 대한 정보의 수준·종류가 달라 대출조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식도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신한금융, 외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역대 최저 수준 2%대 발행
만기 5년 후 상환 콜옵션 포함

신한금융지주는 미화 5억달러 규모의 바젤3 적격 외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AT1)을 글로벌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로 발행에 성공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채권은 지속가능채권 형태로 발행됐으며, 만기 5년 후 상환이 가능한 콜옵션이 포함돼 있다.

발행금리는 2.875%다. 발행 규모의 8배에 해당되는 39억달러의 주문이 몰리며 최초 제시금리 대비 52.5bp(1bp=0.01%포인트) 축소된 수준에서 결정됐다. 글로벌 달러 시장에서 발행된 AT1 중 역대 최저 금리이며, 2%대 금리를 기록한 첫 사례다.

신한지주는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톱티어(Top-

Tier) 수준의 수익성과 지난 2년간의 선제적인 자본확충을 통해 확보한 건전성을 높게 평가 받으며 투자자들의 많은 수요를 이끌어냈다.

2018년 국내 금융지주회사 최초로 AT1을 발행한 이후 4년 연속 외화 채권을 발행한 것도 이번 흥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글로벌 시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회사의 투명성과 인지도를 높인 결과 어려운 시장 환경에서도 글로벌 우량 투자자들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이번 채권은 2019년 발행한 후순위채에 이어 두번째로 지속가능채권 형태로 발행됐다. 발행 초기부터 채권 성격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ESG 관련 투자자 유치에 적극 나섰다. 그 결과 ESG 평가기준이 까다로운 다크그린(Dark Green) 투자자를 30% 가량 유치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그룹

의 친환경 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도 동시에 거뒀다.

향후 신한지주는 조달 재원을 발행 취지에 맞게 저소득층 및 중소기업 지원 등 금융소외계층 지원 사업과 환경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다양한 ESG 사업 추진에 활용할 예정이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이번 발행으로 신한금융그룹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신뢰를 재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한층 강화하면서 국내를 벗어나 채권인수 주체 및 발행 전략을 다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이번에 조달한 재원을 환경 보호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에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투자 기회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하나은행,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솔루션 협력' 업무협약

하나은행이 세무 솔루션 제공 업체 널리소프트와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솔루션 협력'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하나은행은 널리소프트의 AI 기반 세금신고 스마트폰 앱 'SSEM'을 활용해 개인사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나설 예정이다. 업무협약식에서 박지환 하나은행 CIB그룹 부행장(오른쪽)과 천진혁 널리소프트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은행

“집에서 배우는 주택금융교육 재밌지예”

주금공, 온라인 주택금융 강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교육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주금공은 주요 사업 및 2021년도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HF 재밌지예(才美之例) 온라인 주택금융 강좌'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재밌지예는 부산지역 사투리인 '재밌지예'의 소리와 '재능(才)기부'를 통해 아름다운(美) 사회를 꿈꾸는 공기업의 본보기(例)'라는 의미를 결합했다. 주택금융 분야의 지식을 나누며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겠다는 주금공의 의지를 담았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진행한다.

▲주금공 주요사업을 알기 쉽게 설명한 '슬기로운 HF 탐구생활' ▲최근 사회경제적 주요 이슈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회사의 선도적 역할을 소개하는 '핵심만 꼭! ESG채권발행과 HF 주택저당증권(Mortgage Backed Securities)' ▲인사부 채용담당자가 말하는 'HF인사부에 묻다! 2021년 공채, 어떤 인재를 채용하나요?' 등으로 구성했다.

누구나 수강 가능하며 주금공 홈페이지 및 주금공 유튜브 계정에서 강의를 시청할 수 있다.

/백지연 기자 wdus0248@

KB골든라이프X 신규가입시 “선물드리”

KB국민銀, 가입회원 대상 이벤트

KB국민은행은 이달 말까지 KB골든라이프X 신규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선물드리-5'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KB골든라이프X는 활동적이고 진취적인 중·장년층을 위한 웹기반 온라인 비금융 서비스다. ▲건강검진예약 ▲건강상담 ▲문화 정보 ▲전문가 은

퇴설계상담 ▲특별한 DIY카드 메시지 등 고객 맞춤형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KB골든라이프X에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스타벅스 쿠폰을 제공한다. 또한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댓글로 작성한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등 5명에게 정관장 모바일상품권을, 2등 100

명에게는 스타벅스 쿠폰을 제공한다. 두 이벤트는 중복 당첨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에게 따뜻한 응원 메시지를 본인이 직접 만든 카드로 보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와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풍성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B골든라이프X는 누구나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KB골든라이프X를 검색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접속이 가능하다.

/안상미 기자